

광주시, 복지현장과 소통창구 확대한다

소통협의회 개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안 '호응' 종합건강검진비·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 세부사업 실행나서

민선 8기 들어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업그레이드한 광주시가 복지현장과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세부사업 실행에 나선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광주시 사회복지 현장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협의회(TF)'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민선 8기 들어 처우가 크게 개선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와의 현장 소통 등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 '단일임금보장 3개 사업'으로 처우개선대상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확대,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 현장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TF 운영 등을 완료했다. 또 '복지후생증진 10개 사업'으로 건강검진휴가 도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마음건강지킴이 사업, 상해보험료지원, 복지포인트 상향, 보수교육비, 가족돌봄휴가제 강화, 장기근속휴가 확대, 대체인력지원 확대, 유급병가 확대 등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과 처우개선위원회 김윤배 위원장, 정은강 부위원장을 비롯해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등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소통창구TF 신규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해 전체 회의를 연대 이어 분과별 2차 회의에서 의견을 나눴다.

김윤배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은 "복지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은 복지현장을 이해하고,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소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만큼 소통창구 협의회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복지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현실적인 목소리가 행정에 전달되고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아동센터 직능단체 대표이자 신규 위원인 류제근 위원은 "지역아동센터가 민선8기에 이르러 단일임금 호봉제를 도입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다"며 "호봉제 도입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도 소통창구협의회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 목소리를 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민선8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야말로 끊임없는 현장과 소통의 결실이자 성과"라면서 "촉촉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그 종사자들을 위해 소통창구협의회 위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단일임금 보장 및 노동여건 개선이라는 2대 분야 13개 사업의 제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종사자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함께 걸으며 건강 챙기고 이웃도 돕고"

'제3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가 2일 광주 서구 서창노을길 일원에서 열렸다. 걷기대회에 참가한 주민들이 5.2km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날 모은 참가비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준다...생활인구도 반영

행안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생활인구는 지자체 관내 주민·외국인 등록인구에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한 수치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

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이로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병상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자 세제·재정지원 등을 하는 기회발전특구 면적에 따른 교부세 산정기준도 신설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깎았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교부금 지원이 필요한 위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보장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장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

교부세 산정 시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노령인구·아동인구·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도 각각 3%포인트씩 상향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근까지 검토해온 부동산교부세 개편안도 담겼다.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비중은 전체 25%로 정했다. 산정방식도 세분화해 저출생 대응의 경우 저출생투자비 지수, 영유아 수 비율 등을 반영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

목포서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

5~6일 특별강연·문화행사 등

고(故)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100년 평화페스티벌'이 5일부터 이틀 간 목포에서 열린다.

전남도 등의 주최로 열리는 평화페스티벌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걷는 평화·생명의 길'을 주제로 개최식, 기초강연, 특별강연, 주한 외교사절 초청 강연, 문화행사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개회식은 5일 오전 10시 영암 호텔현대 바이아라관에서 열고 김성태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가 '대한민국 100년, 김대중 100년', 자넷 잡스남 아공 투투재단 CEO가 '테스몬드 투투 대주교의 화해와 평화, 한국에 대한 함의'를 주제로 기초강연한다.

김대중 대통령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정책이 한국 문화예술과 한류 문화에 끼친 영향을 조명하는 테마토크쇼 '김대중과 한류 문화'는 5일 오후 6시 30분부터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은 명필름 대표, 배우 장형성, 역사학자 전우

용, 역사스토리텔러 썬 김 등이 참여한다.

특별강연도 이어진다.

평화학 권위자인 올리버 리치몬드 맨체스터대 교수의 '미·중·러의 대결과 세계평화의 길' 특별강연,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과 아시아 최초 헌법재판소에 기후헌법소원을 내 승소한 우리나라 기후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인류와 자연의 평화적 공생' 특별강연 및 토론회가 5일 열린다.

세계적 인공지능 전문가이며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 원장이자 특임교수인 차상균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일과 삶의 새로운 조화'를 주제로 6일 오전 강연하고 오후에는 안토니오 베네비데즈 동티모르대사가 '역사적 유대, 김대중과 동티모르'를, 게오르그 슈미트 독일대사가 '김대중, 독일인의 시각에서 본 그의 유산'을 주제로 특별강연한다. '청소년 평화인권 토크 콘서트'(5일), 6일 '청소년 평화인권 골든벨 한마당', '나는 김대중이다' 연극 상연(이상 6일) 등도 계획됐다. 퓨전국악 그룹 퀸, 락밴드 데이브레이크, 가수 송가인 등이 출연하는 평화콘서트는 6일 오후 6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장흥통합의학박람회서 다문화박람회 성료

어울림 한마당 행사

전도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장흥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에서 '제1회 전남도 다문화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다양성의 만남, 하나 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 서로 존중받고, 지역사회가 하나가 되

기를 희망하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로 펼쳐졌다.

1일에는 다문화가족 초등학생 자녀들이 참석한 어린이 종합예술대회가 열렸고 2일에는 미술공연, 베트남 전통춤 공연을 식전행사로 시작해 개회식,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열렸다.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문화사회 구현에 기여한 12명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9명이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다문화 엄마학교에서 초등 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32명의 다문화 엄마를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다문화가족 부모와 친구들이 한국어와 부모의 언어로 발표하는 이야기 경진대회(이중언어 페스티벌),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이 참가해 각 나라의 전통춤, K팝 댄스, 노래, 악기연주 등 문화예술경연대회도 펼쳐졌다.

전남지역 다문화가족구는 1만 6325세대 5만 2817명으로 전국(41만 5584세대 119만 1768명)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